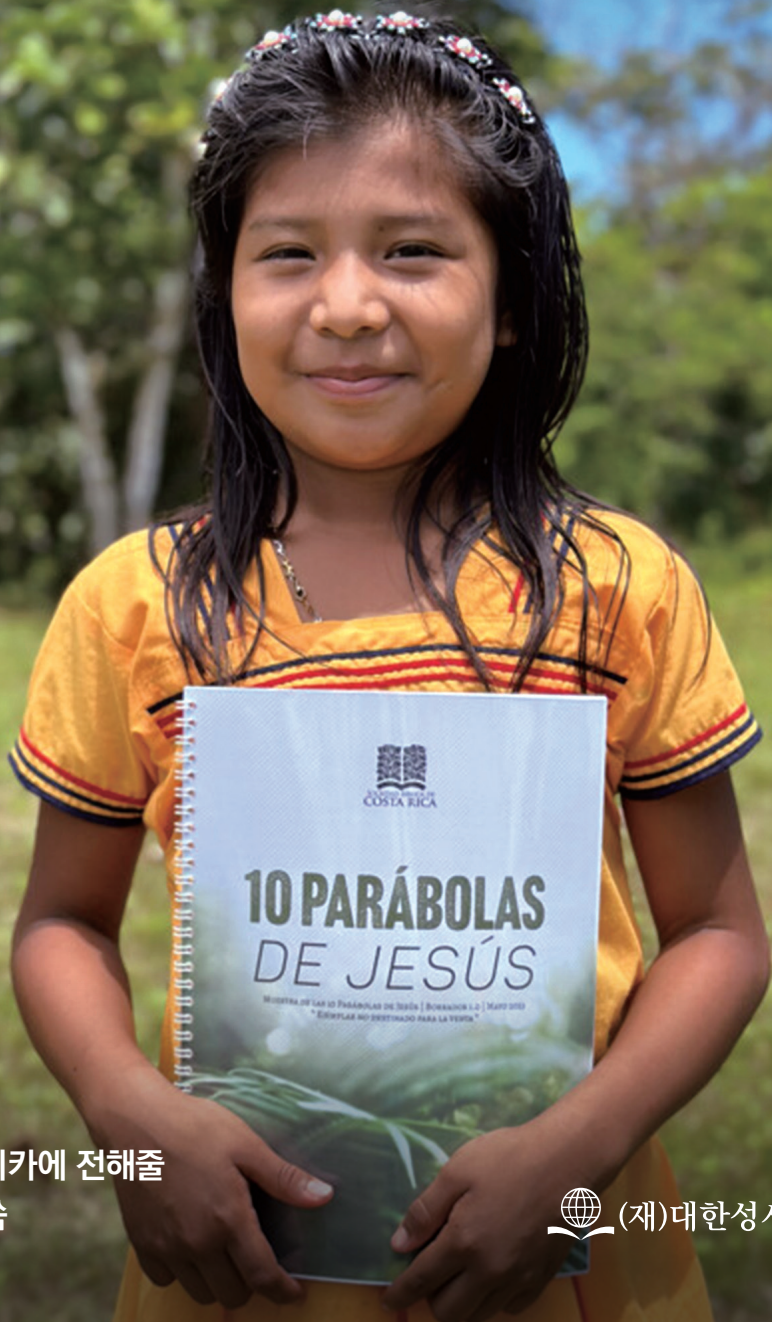


#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4년 여름 제70권 2호



라틴 아메리카에 전해줄  
소망의 말씀



(재)대한성서공회

#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

한글 성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 사회의 구습을  
타파·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 잡혀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교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서한국

2024 여름 제70권 2호

### 02 포토에세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04 2024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서 보급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06 커버스토리

라틴 아메리카에 전해줄  
소망의 말씀

### 10 2024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1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12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진심이 전해지는 편지

### 14 성서공회를 위한 기도

2024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기도의 날

### 16 현장 이야기

어떤 선물보다 값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 18 후원 이야기

### 22 대한성서공회 소식

- 2023 세계 성서 번역 현황
- 제141회 정기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배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법체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4년 6월 30일

· 인쇄인 인쇄처 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물)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탄자니아성서공회의 문자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하리에트(Harieth)

##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탄자니아 여성 중 약 30%는 문맹입니다.  
이들은 글을 알지 못해 도로의 표지판을 읽을 수 없고,  
자녀들의 공부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탄자니아성서공회는 이러한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리에트(Harieth)도 글을 배운 후 삶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저는 가이로(Gairo) 지역의  
던발루메(Dunbaalume)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라 학교에 다니지 못해 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문자교실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게 된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서 보급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익현 사장



유럽과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국제적인 경기 침체 상황 가운데에도 국내외 성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음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자매 성서교회들은 성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인상 등의 문제로 자매 성서교회들이 성서 제작 주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성서교회들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며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대한 기여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미자립 성서교회 성서 사업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본 공회에서는 해외 성서 수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남아메리카 지역 성서 출판회의에 참석하여 스페인어 성경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케냐 등을 방문하여 각 성서교회들과 성경 출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프랑스 성서교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해외 성서 제작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국내 성서 보급 사업

금년 상반기에는 275,287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금년 말에는 『새한글성경』 완역을 출간하여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입니다.

###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 상반기에는 79개 나라에 137개 언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166부가 증가한 2,067,958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디지털 인쇄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표지 디자인과 더불어 내구성이 향상된 성경 표지 개발로 자매 성서교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자매 성서교회의 요청과 필요를 반영한 성경을 출판하여 해외 성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자매 성서교회들의 요청으로, 비사어 성경(부르키나파소), 키헤헤어 성경과 키카굴루어 성경(탄자니아), 기달어 성경(카메룬)의 조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208개의 조판이 완료되었으며, 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헌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적인 이유로 성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개 성서교회에 258,134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멕시코성서공회의 초청으로 멕시코 출어 성경 봉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봉헌식에는 출 부족 교회 지도자들과 부족민들 6천여 명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언어로 처음 번역된 성경을 들고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출어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한 서울광영교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미얀마에서는 정치적 혼돈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성서공회에서는 이러한 난민들에게 10만 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한국교회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남미의 아이티는 무장강단의 폭동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무질서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티성서공회에서는 혼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성경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국내외에 성경을 기증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경번역연구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 작업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 위원회”가 16개 교단에서 추천한 위원들과 국어 위원들로 구성되어,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3개 분과로, 신약은 2개 분과로 나뉘어서 각 분과별로 본문을 맡아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개정 초안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개정 위원들이 교차 검토를 시작하였고, 구약의 경우에는 개정 초안 작업이 49% 진행되어 내년 5월부터는 개정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원문과 철저히 대조하면서 그동안 개역 성경에는 없었던 문장 부호인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따옴표 등을 넣어, 독자들이 성경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교회 독자들로부터 들어온 개정 제안을 개정 위원회에 전달하여 개역 성경의 압축미와 함축성, 유려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독자들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41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한눈으로 보는 2024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 국내 성서 보급

275,287부의  
성서 보급



#### 해외 성서 보급

79개 나라에 137개  
언어로 2,067,958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



#### 해외 성서 기증

34개 성서교회에  
258,134부의 성서 기증



#### 후원 헌금

지난해와 비슷한  
32억 4천여만 원

# 라틴 아메리카에 전해줄 소망의 말씀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 민족 국가의 지배를 받아온 과거의 유산을 간직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가톨릭 신앙을 지키며 라틴족의 문화와 사회 체제를 따르고,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와 같은 라틴족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약 6억 명으로, 농업과 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빈곤,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범죄와 폭력, 그리고 교육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후반부터, 라틴 아메리카 여러 지역에서는 범죄와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마약 거래와 관련된 범죄, 갯단 활동, 그리고 거리 폭력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빈곤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국가적으로도 교육 시설 수가 부족합니다. 교육의 기회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해 경제적 기회가 제한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삶의 가치를 알려주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성경'이 절실히 필

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 아메리카에 소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 말씀으로 얻는 희망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 발표(2018)에 따르면 과테말라는 미성년자 학대에 관한 많은 통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불행히도 학대 통계는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과테말라의 10대 미혼모 출산율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어린 미혼모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과테말라성서공회는 치유가 필요한 어린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 미혼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랑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술에 취해 화를 내는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집에는 항상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섯 살이 많은 갯단 조직원을 만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과테말라성서공회를 만났습니다. 성서공회로부터 받은 성경을 통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상황은 힘들었지만, 성경은 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잉그리드(Ingrid)/과테말라



▲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17살 잉그리드(Ingrid)

##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성경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 백여 개의 원주민 집단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에서의 차별로 인해 콜롬비아의 원주민들은 전통과 관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의 아마존 지역에는 약 26개의 토착 민족이 있으며, 인구는 4만 명 이상입니다. 이 지역의 토착민 공동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삶의 기반이 파괴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겪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성서공회는 차별, 가난, 이주 등으

로 소외된 콜롬비아의 원주민들에게 희망의 흔적을 남기고, 말씀 안에서 평화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의 흔적'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심리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 코기(Kogi) 부족 공동체는 영토를 떠나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전통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얻었습니다.”

-코기 부족 지도자/콜롬비아

▶ 콜롬비아성서공회의 '희망의 흔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주민 공동체



“우리 부족은 강제 이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평안과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며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희망의 흔적’ 프로그램 참여자/콜롬비아

### 말씀으로 치유되는 상처



페루는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1990년대 민주체제가 정착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빈부격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페루성서공회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

무엇보다 페루의 많은 가정에서는 높은 비율로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이 현상이 더욱 심해지며, 가정 폭력을 겪은 자녀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페루성서공회에서는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과 자녀들이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급되는 성경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

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세요. 🌐

###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간증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제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드레아(Andrea,가명)/페루

“저는 제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웠습니다. 항상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나(Danna,가명)/페루

10만 원의 현금으로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성경이 컨테이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1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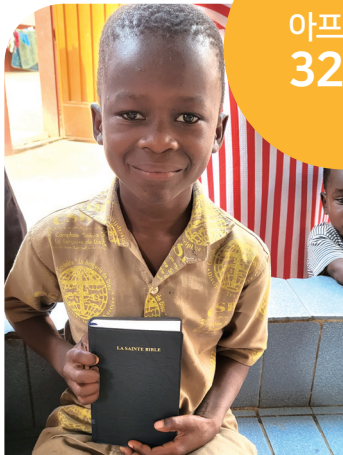
• 붉은 글씨 -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4.05.21 기준)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자립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아메리카  
18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시아·태평양  
11개국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유럽·중동  
20개국

걸프, 그리스, 레바논,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메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조지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 진심이 전해지는 편지

박초롱(정신여자고등학교 교사)



누구나 편지를 쓰거나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편지를 문자나 SNS 메시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자나 SNS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생성되고 상호 소통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화에 가깝습니다.

또한, 편지는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 생각을 갈무리하고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편지를 보물처럼 소중히, 오랫동안 간직하기도 합니다.

신약에는 서신서라고 일컫는 여러 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 소위 ‘-서’라는 글자가 붙는 편지들입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글에서 편지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이 편지임을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전하고자 하는 말이 담긴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일부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베드로전서 1:1-2)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기아, 속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 뿌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베드로전서 1:1-2)

같은 내용임에도 우리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이 편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구성 방식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정성, 편지를 쓴 사람의 진심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아래와 같은 표현 방식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로마서 1:7)

아니, 성경에서 느낌표라니! 느낌표는 쓴 사람의 의도가 전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느낌표 하나를 통해, 편지를 받는 사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이러한 문장 부호의 사용으로 내용을 더욱 극적으로 전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으며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지보다는 즉각적인 소통이 익숙한 시대이지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말씀을 조금 더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길 기도합니다. 📖

## 2024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기도의 날

매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기도의 날을 기념하며 각국의 성경 사역과 전 세계 성서공회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4년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 전쟁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폭력과 분쟁의 영향을 받은 성서공회 지도자들이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기도문을 읽으며 해당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크라이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이 땅에 빛으로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짙을지라도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빛이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실어 나

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아나톨리 레이키네츠 목사  
(Rev. Anatoliy Raychynets)/  
우크라이나성서공회 부총무

### 미얀마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주님의 무한하신 위엄 앞에 겸손히 절하며, 모든 창조물이 증언하는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기뻐합니다. 특별히 아이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티는 상당 기간 동안 이 작은 나라의 존립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폭력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죽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세상에 평화와 안전을 주시길 기도합

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 마그다 빅터(Magda Victor)/  
아이티성서공회 총무

### 미얀마

미얀마는 소망이 꺾이고, 공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수백만 명이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실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사역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 코이 람 탕 목사(Rev. Khoi Lam Thang)/  
미얀마성서공회 총무

### 수단

주님, 악한 자가 일으키는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수단과 전 세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피난민과 이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킨 수단의 지도자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에게 평화롭게 국민들을 이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

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이스마일 압둘라만 카나니 목사  
(Rev. Ismail Abdulrahman Kanani)/  
수단성서공회 총무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보실 수 있으신 하나님, 저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전쟁과 파괴가 만연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자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저희의 소망이 자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기를, 저희의 사랑이 자라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더크 게버스 목사(Rev. Dirk Gevers)/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총무

”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긴 역사에 걸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성서 사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어떤 선물보다 값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 캄보디아성서공회의 문자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는 교육의 부재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맹률이 높습니다. 캄보디아성서공회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해 성경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인구의 98%가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이지만,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소망하며 문자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레이벵 지역에 사는 라이(Ry)는 일찍 미망인이 된 후, 홀로 다섯 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라이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는 글을 알지 못해 자녀들의 교육에는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젊은이들을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전하는 캄보디아성서공회의 문자교실을 알게 되

었고, 라이는 큰 두 자녀인 소피아와 반낙을 문자교실에 등록시켰습니다.

라이의 이 선택은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문자교실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침으로써 자녀들에게 희망과 삶의 목적을 알려주었습니다. 문맹이었던 소피아와 반낙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며 믿음과 지혜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문자교실 수업으로 라이의 가정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생활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였습니다. 라이는 세상의 어떤 재산보다 더 값진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사는 15살 레아는 문자교실에서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교사로 봉사하며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교실은 수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며, 문자교실을 통해 캄보디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저는 문자교실에서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고 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레아(Leah,가명)/문자교실 교사



▲ 캄보디아성서공회의 문자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



▲ 기증하는 성경을 들고 있는 김영례 권사 가정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충현교회 성도들

##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아이티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 - 아이티 (아이티어 큰 활자 성경) 3,000부 기증

2024년 4월 5일, 김영례 권사(동신교회), 왕보람 대표의 후원으로 아이티에 〈아이티어 큰 활자 성경〉 3,0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김영례 권사 가정은故왕기일 장로의 유지를 따라 7년째 해외 성경 보내기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증식에는 특별히 김영례 권사 가정 3대가 참여하여 성경 보내기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티성서공회 마그다 빅터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아이티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위기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역에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동행으로 저희는 아이티에 희망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영례 권사는 “어려운 나라 아이티에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선교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마이크로네시아를 시작으로 7번째로 아이티에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아이티는 끊임없는 자연 재해로 국토 전체가 폐허로 변하고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갠단 폭동으로 치안이 악화되어 여러 범죄 속에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에 후원하는 〈아이티어 큰 활자 성경〉 3,000부는 국가의 혼란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성경을 통해 아이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 아르메니아에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충현교회 -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어 성경〉 1,520부 기증

2024년 4월 17일, 충현교회(한규삼 목사)의 후원으로 아르메니아에 〈아르메니아어 성경〉 1,52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충현교회 강성은 목사는 “우리가 아르메니아에 직접 갈 수 없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화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아르메니아성서공회 후식 스메바티안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성경은 아르메니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매일 읽는 중요한 책입니다. 충현교회의 후원은 아르메니아성서공회의 성경 보급 사역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충현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아르메니아는 지리적으로는 서아시아에 위치해 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가깝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란,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등 이슬람권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영토 및 종교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이 높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한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과거부터 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크고 작은 분쟁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전해지는 〈아르메니아어 성경〉 1,520부는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정읍중앙교회 성도들

## 토고에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읍중앙교회 - 토고 <에웨어 성경> 2,200부 기증

2024년 4월 24일, 정읍중앙교회(김선중 목사)의 후원으로 토고에 <에웨어 성경> 2,2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정읍중앙교회 김선중 목사는 “아프리카 땅에 먹을 양식과 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귀한 일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담아 토고에 에웨어 성경을 전달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라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토고 성경 기증에 후원한 정읍중앙교회 박학규 원로장로는 “지난 2022년 9월 2일에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친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저희 아내의 믿음과 사랑을 기리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좋은 일에 쓰시라고 선교 헌금으로 전달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고성서공회 에스텔 아퀴농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여러분의 후원으로 토고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고 신앙의 기쁨을 되찾으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고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신 정읍중앙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토고는 강한 애니미즘(Animism, 정령신앙)이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토고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가 매우 적어 기본적인 문해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고에 전해지는 <에웨어 성경> 2,200부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과 성경 기반 문자교실에서 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서울광염교회 성도들

## 모국어로 읽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서울광염교회 - 부르키나파소 <비샤어 성경>, <레레어 성경> 6,000부, 멕시코 <츨어 성경> 3,500부,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어 성경> 1,270부, 잠비아 <통가 잠비아어 성경>, <영어 성경> 8,100부 기증

2024년 4월 26일,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해외 4개국에 성경 18,87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광염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우리가 제작하여 반포하는 이 성경을 통해 비샤, 레레 부족들이 최초로 자신들의 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읽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광염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을 전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 드러만 양키네 총무를 비롯하여 후원받는 성서공회들은 영상 인사를 통해 여러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경을 후원해 준 서울광염교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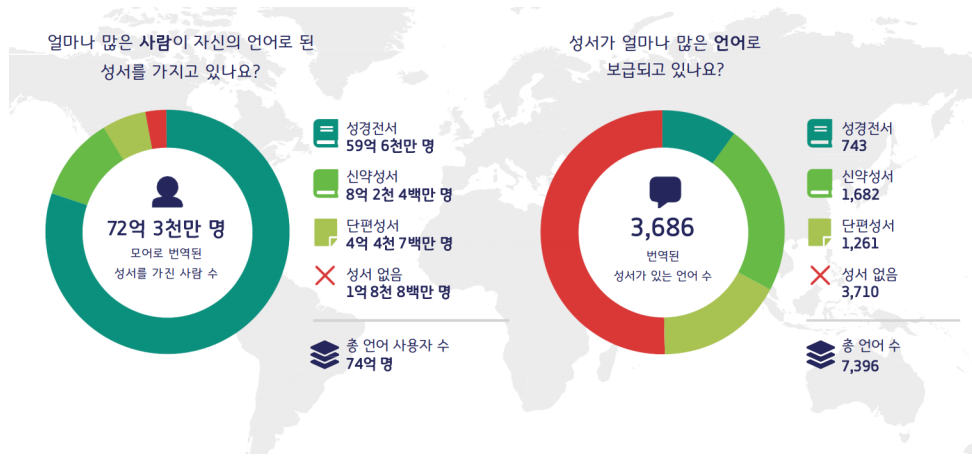
이번에 후원하는 성경을 통해 특별히 부르키나파소, 멕시코는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부족들이 처음으로 모국어 성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잠비아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경을 구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후원받는 성경을 통해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광염교회의 후원으로 4개 나라에 전달되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 1 2023 세계 성서 번역 현황

## 전 세계, 3,686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다



▲ 2023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인구, 언어 통계

2023년,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12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106개의 언어로 된 성서를 번역하였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더크 게버스(Dirk Gevers) 총무는 “2023년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팀들은 함께 노력하여 전 세계 사람들 8명 중 한 명에게 다양한 형태로 성서를 전달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메시지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의 능력을 전파하는 사명에 헌신되어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총 7,396개의 언어 가운

데 성경전서는 74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었습니다. 신약성서는 1,682개 언어로, 단편성서는 1,261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아직 3,710개의 언어는 단편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 중입니다.

전 세계 59억 6천만 명이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8억 2천 4백만 명,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4억 4천 7백만 명입니다. 하지만 1억 8천 8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언어 절반가량은 아직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억 6천만 명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전서

가 없습니다.

2023년 한 해, 성경전서와 신약성서, 단편성서를 포함하여 72개의 언어로 첫 번역 성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6개 언어는 성경전서로, 17개 언어는 신약성서로, 39개의 언어는 단편성서로 번역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언어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서공회들은 난민들의 증가로 인한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일의 중요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결과의 좋은 예시로 전 세계에 흩어진 6천 1백만 명에 달하는 페르시아인 공동체는 자신들의 언어인 페르시아(Farsi)어로 성경전서 개정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디아스포라들이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말씀이

문화적으로 공감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로 보여졌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모든 언어로 성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번역 기관들 간의 협력 증대, 기술의 발전과 후원자들의 동참 등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성서 번역 역사에서 없었던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38년까지 1,200개의 성서 번역을 완성한다는 큰 비전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880개는 첫 번역 프로젝트고, 나머지 320개 프로젝트는 새로운 번역이거나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까지 160개 번역이 완성되었고, 442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



▲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번역된 미얀마 파오(Pao)어 첫 성경 봉헌식 모습

## 2 제141회 정기이사회 개최



▲ 제141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대한성서공회 제141회 정기이사회가 2024년 5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부 기도회에서는 김형래 목사(아현교회)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로 찬성회원 대표인 이형로 목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익현 사장의 사장 보고와 호재민 총무의 모금 사업 보고, 이두희 소장의 성경번역연구소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교단 대표로 허요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안산제일교회)와 찬성회원 대표로 이상화 목사가 선임되었고, 신 임원에는 이사장 김경원 목사, 부이사장 이선균 목사, 서기 양병희 목사, 회계 조성봉 목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김호용 상임이사를 재선임하였으며, 박정희 본부장을 재정담당 부총무로, 정경재 본부장을 재단 및 행정·관리담당 부총무로 승진을 허락하였습니다. 🌐

매일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 03 직접 송금하기

후원계좌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                           |                      |
|---------------------------|----------------------|
| 국민은행 070-01-0340-570      | 신한은행 140-009-909678  |
| 우리은행 1005-702-311166      | 수협은행 033-01-085327   |
| 농협은행 355-0025-0990-53     | 우체국 011916-01-000076 |
|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 미래의 소망,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성경!

과테말라의 호세는 알코올 중독자 할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돌보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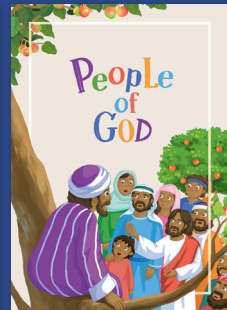
그러나 호세는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세(hosè, 가명)/과테말라

지구촌 어린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본 공회에서 출판하여  
세계 각 언어로 번역·보급되는 어린이 그림 성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